



윤여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박수치고 있다. /뉴스시

대선 투표율 광주 83.9%·전남 83.6%… 전국 1·2위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에서 광주와 전남의 최종 투표율이 각각 83%대를 넘기며 전국 1·2위를 나란히 기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광주 지역 선거인 119만4471명 중 100만2166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83.9%로 집계됐다. 전체 투표율 79.4%를 4.5%포인트(P) 웃돌며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에서는 선거인 155만9431명 중 130만3392명이 한 표를 행사해 83.6%를

전국 투표율 79.4%보다도 4% 포인트 웃돌아 전 지역 80% 이상 투표… ‘최저’ 목포시 81.5% ‘첫 정권교체’ 15대 이후 최대투표율… 27년만

기록,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투표 열기가 높았다.

전남은 전국 투표율보다 4.2%포인트 높다.

광주와 전남 모두 이번 대선 투표율이 지난 대선 투표율보다 높았다. 2022년 3

월 치러진 지난 20대 대선 당시 최종 투표율은 광주 81.5%, 전남 81.1%였다. 광주는 2.4% 포인트, 전남은 2.5% 포인트 높다.

역대 대선 지역별 투표율로 봐도 김대중 대통령이 사상 첫 정권 교체를 이룬 1998년 15대 대선(광주 89.9%·전남

87.3%)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번 대선 시·군·구 별 투표율은 광주의 경우 남구가 84.6%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4개 자치구 투표율은 83.4~84.0% 분포를 보였다.

전남에선 구례군 85.7%, 완도군이 85.5%로 도내 1·2위로 나타났다. 도내 전 시·군 투표율이 80%를 넘겼다. 광주·전남을 통틀어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목포시

도 81.5%로 집계됐다.

/뉴스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연락소

지상과 3사 출구 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51.7%로 유력 경쟁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39.3%)를 제치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양부남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지역 상임선대위원장 등 지지자 100여 명은 14.3%p로 김 후보를 제쳤다는 결과에 두

‘이재명 51.7%’ 민주당 광주시당, 출구 조사 결과에 ‘환호’

양부남 총괄상임선대위원장 “국민의 내란 종식·국민통합 반영”

손을 번쩍 들며 환호하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두 손을 높이 모아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이 파이브하거나 만세삼창을 외치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이 후보가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득표율 80%를 넘기자 서로 부둥켜안고 “그동

안 고생 많았다”, “꽃길만 걷자”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나눴다.

광주시당 의원들은 과반이 넘는 득표율에 이 후보의 당선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부남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출구 조사 결과는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

과”라며 “45년 전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켰다면, 이번엔 투표로 훼손된 민주를 지킴으로써 선거 역사에 큰 획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광주를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 청소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광주 현안이 실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박도일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날인 3일 오전 광주 동구 최고령 유권자인 김정자(109·여)씨가 계림경로당(계림1동 제2투표소)에서 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

“투표하는 게 행복” 109세 어르신도 투표 참여

광주서 100세 넘는 고령자 투표 행렬 이어져

동구 최고령 김정자씨 소중한 한 표 행사

남구 103세 백삼봉씨 며느리·손녀와 투표

“오래 살아 투표하는 게 행복이지.”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투표일인 3일 광주에서 100세가 넘는 고령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이어졌다.

광주 동구지역 유권자 중 최고령자인 김정자(109)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광주 동구 계림경로당(계림1동 제2투표소)을 찾아 투표했다.

투표소에 들어선 김씨를 보자 선거 관리원들은 “1915년생인데 정정하시다”며 놀라움과 함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응원을 보냈다.

지팡이를 짚고, 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마친 김씨는 “오래 살아 투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가 찍은 사람이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광주를 더 살기 좋게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게,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씨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투표할 것이다”며 “한 표 한 표가 크고 소중하다. 청년들도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광주 남구 진월동 행정복지센터(진월동 제1투표소)에서는 백삼봉(103)씨와 며느리와 손녀, 증손녀와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100세를 기념하는 청려장을 짚은 채 며느리와 손녀의 도움을 받아 투표소로 이동한 백씨는 감

바섯과 주름이 무색하게 정정했다.

신분증 확인을 마친 뒤 공손히 투표용지를 받아든 그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기표소로 향했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백 어르신은 후련한 듯 웃으며 투표소를 빠져나왔다.

평소 주관보호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을 지켜온 백씨는 “오늘 투표 전에도 ‘어서 투표하러 가자’고 가족들을 보냈다. 단 한 번도 투표에 빠지지 않았다”며 ‘민주시민’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백씨는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건강히 지내면서 우리나라를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광주에서는 북구 신모(103·여)씨와 남구 김모(101·여)씨가 지난 사전투표 기간 투표를 마치는 등 고령자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 남성 최고령 유권자인 장모(102)씨도 이날 오후 본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 광주지역 선거인 수는 119만4471명, 전남은 155만9431명이다.

이중 100세 이상 유권자는 광주가 202명으로 전남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114세 여성과 전남 나주 123세 여성 유권자는 건강상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광환 기자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